

CAREX 발암인자에 노출된 산업별 근로자 수 추정 프로그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 박동욱

우리나라 근로자가 발암인자에 노출되는 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통계가 있을까? 예를 들어 벤젠, 석면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몇 명이나 될까? 발암물질 또는 발암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현황을 산업별 혹은 직업별로 분류한 정보가 있을까? 필자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아쉽게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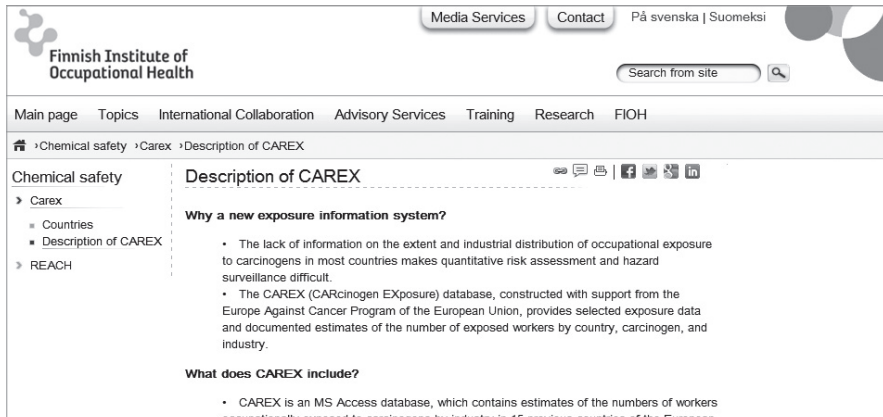
사업주는 물론이고 국가(고용노동부 등)에서 발암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현황을 파악하고 감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발암인자를 발생시키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직접 발암인자에 대한 노출 특성, 노출 수준, 건강영향 등을 평가하고 감시해서 질병을 예방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도 최소한 산업별, 직업별 발암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산업보건사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원고에서는 국가 규모에서 발암인자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CAREX(Carcinogen Exposure)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은 핀란드 산업보건연구원(FIOH)에서 개발하였다. 핵심은 핀란드의 산업별 발암물질 노출 근로자 비율(%)을 다른 국가에도 적용하여 산업별 발암인자 노출 근로자 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유럽 15개국, 캐나다 등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산업별 발암인자에 노출된 근로자 수를 추정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발암인자는 국제암연구소(IARC)의 group 1, group 2A, 그리고 일부 Group 2B이다. 노출

특성인 공정과 직업에 따라 구분이 되지 않고 노출 수준을 알 수 없는 등 분명한 한계점 등이 있지만 국가 규모에서 발암인자 관리를 위해 갖추어야 할 기초 체계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꼭 참조해야 할 제도라고 본다.



<그림 1> CAREX프로그램 화면

웹사이트 <http://www.ttl.fi>에서 CAREX를 검색하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의문점이 있으면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메일로 문의해 바로 해결할 수 있다. 📧